

1. 치과병원장, 30 여 봉사단체장...이재운 대한 바둑협회장 별세

이충원 독자부 - 5 시간 전

반응

•
•
•
•
•

(서울=연합뉴스) 이충원 기자 =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
치과의사이면서 한 때 30 개가 넘는 단체장을 맡았고, 언어학 박사,
시인으로도 활동한 '르네상스맨' 이재운(李在允) 대한바둑협회장이
21 일 오후 4 시께 경북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. **향년
73 세.**



© 제공: 연합뉴스 이재운 대한 바둑협회장의 생전 모습

1949년 대구 달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 계성고,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뒤 1982년 대구에 덕영치과병원을 차렸다. 임플란트 시술 성공률 90%를 넘기며 단일 클리닉으로는 가장 많은 치과의사(16명)를 둔 큰 병원으로 키웠다. 지난해 1월 "직접 한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약 9만건"이라고 밝혔고, **별세 이틀 전인 19일까지 직접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**